

공동체 소식

연중 제13주일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6월 기도지향

-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가정을 위하여
-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가정을 위하여

- 7월 공동체 미사 지향 가정은 정한조, 정지현(막달레나) 가정입니다.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6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성심 대축일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 것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 성체성사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6월 29일(수요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입니다.

- 이날 가톨릭 기도서의 '교황을 위한 기도'를 이 날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신심미사 안내 29일(수요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입니다.

- 예수성심신심 : 7/1(금) 오전 10:00, 미사 30분 전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있습니다.
- 성모신심미사 : 7/2(토) 오전 10:00

6월 '총구역회 모임' 과 '구역별 모임' 은 쉽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본당 '평일미사' 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마음의 크기만큼
두려움은 작아진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9	221	167	205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예진 한나 정예찬 미카엘	문호진 안토니오 김준영 요셉
차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이재혁 바오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정수한 베드로	홍순익 마르띠노 최은미 아네스
차주	최은미 아네스	문석찬 요셉 백문주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다 함께
차주	정연숙, 장남순, 박동희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6/19	59명	287불	2,150불
안병환, 이우석, 류기범, 김정원, 정지현, 김호원, 문석찬, 정준구(총 8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만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익 마르띠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나선 을 한 해도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 으니 육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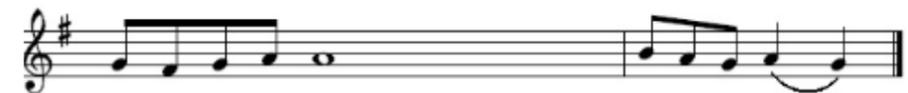
그림 묵상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 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형겁에 그 옷이 땅겨 더 심 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 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마태 9,14-17)

제 1 독서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9,16-19,21

<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나섰다. >

화 답 송 :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 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보이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5,1,13-18

<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51-62

<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

세 마

“버림의 삶”



오늘 독서와 복음은 한결같이 “부르심과 따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1독서에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는 가진 것을 모두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대뜸 부모에게 작별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청합니다. 복음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엘리사는 기르던 거릿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자신이 쓰던 쟁기를 부수어 그것으로 고기를 구운 다음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작별인사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행위가 아니라, 뒤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한, 모든 것을 제대로 버리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좀 더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루카 9,62) 엘리사는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라도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럴 여유조차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앞에는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종말의 때가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종말을 코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앞에 놓여 있다고 여기는 사람의 삶은 보통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느님 나라만 생각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오늘 2독서는 이러한 종말론적 삶을 두고 자유로운 삶, 해방된 삶이라고 부릅니다. 육의 욕망에서 벗어나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심 받은 이들입니다.

가끔 세상과 떨어져 혼자 살면 죄를 짓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죄는 항상 관계 안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과 엮이며 짓게 되는 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큰 부담입니다. 이때문인지 교회는 성직자와 수도자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특별히 가족마저 끊어버리는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진정 자유로운 삶, 해방된 종말론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버림의 삶, 세상 욕망에서 자유로운 삶은 비단 성직자들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운 삶, 해방된 삶,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초대하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얽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거부한다면 우리 모두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지도 모릅니다(1코린 5,10). 하지만 세상에 얽매어 살 수밖에 없다고 육의 욕망에 이끌려,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로운 삶, 해방된 삶,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 주일을 맞아, 영광스러워 보이는 자리이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사시는 교황님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을 중심으로 모두 일치하여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조그만 힘을 보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성전재건의 예언자, 하카이 예언자

내란으로 왕이 도망치자 바빌론의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페르시아 군대에 항복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습니다. 키루스의 칙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키루스는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다며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사명을 맡기셨다고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예즈 1,1-3

오랫동안 포로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집 짓는 이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사제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인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이 지시한대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온 백성은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크게 환호하였는데 특히 노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예즈 3,8-13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성전건축공사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전건축공사에 협력하겠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의를 유다인 측에서 거부하자 그에 대한 복수로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여러가지 이유로 항소하여 성전공사를 중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재건공사는 18년간이나 중지되었습

니다. 그런데 하카이 예언자를 통해 어떤 예언이 내려졌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하카 2,1-9

하카이는 예배와 성전에 큰 관심을 쏟고 성전 주변에서 생활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나 아주 짧은 활동을 한 후 홀연히 사라진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카이는 하느님을 위한 모범적인 일꾼으로서 백성들에게 질책보다는 위로와 위안을 더 많이 준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에게 하느님의 성전을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전은 하느님의 현존 장소이며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을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카이 예언자는 무엇보다도 일상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 묵상

웃음이

그분께 영혀깁시다.
 홀로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이랍니다.
 웃음이 말처럼..
 그분께 영혀깁시다.

“자, 이제 그분과 화해하여 평화를 되찾게.
 그러면 자네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일세.” (욘 22:21)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